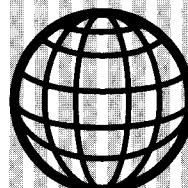


# WORLD

## POULTRY

### NEWS



# 해외양계뉴스



미국

#### 옥수수가격 상승전망 발표

미국의 국립 옥수수재배자협회(NCGA)의 노동조합비 공제 자금으로 수행된 작물유래 재활용자원 비전 2020 프로그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셸당 옥수수가격이 연간 최소 50센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CGA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연구결과, 옥수수나 다른 식물 원료를 플라스틱이나 폐인트, 카펫 섬유, 접착제, 부동액 등과 같은 폭넓은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기초재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식물을 석유 대신 원료로 이용하면 2020년에는 10%, 그리고 2050년에는 50%까지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식물이 석유를 10%정도 대체할 수 있다면, 농민들의 수입이 연간 5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기회가 더 많아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Agriculture Online)

브라질

#### 세계최대 축산물 수출국 부상 전망

브라질 정부는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이 철폐될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최대의 육류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질 농무부장관은 미국이나 EU와 같은 주요 수출국들이 복잡한 수입관세제도를 철폐한다면 브라질의 닭고기와 돼지고기 및 쇠고기의 수출량은 매년 20~30%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대변하듯이 브라질의 지난해 닭고기 수출물량은 77,060 톤으로 1998년도 보다 무려 26%나 증가하였으며 수출액도 19%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브라질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닭고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미국과 아르헨티나에 이은 세계 3위의 쇠고기 수출국으로 잘 알려져 있어 무역장벽 문제들이 해결될 경우 1위 수출국 실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로이터통신)

## 태국

### 계란 과잉생산으로 어려움 지속

태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잉생산에 의한 저난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태국에서는 1일 2,000만개의 계란이 적정수준인데 올해들면서 생산량이 늘어나 2,200만개의 계란이 과잉생산되면서 1일 200만개의 계란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이다. 현재 태국의 계란생산비는 42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산지가격은 34원으로 생산비선 이하의 난가로 인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잉여 계란 생산물량에 대해 수출에 주력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수출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PM)

## 영국

### 계란소비 활성화에 큰 성과

영국은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들 특히, 아이들과 가정주부들의 계란소비 확대를 위해 난각에 사자 마크가 새겨진 새로운 계란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란은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스 방지를 위한 백신을 통해 과거보다 2배 이상 살모넬라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으며, 콜레스테롤치도 몸에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건연구센타(PHLS)에서 보

종을 하였다. 양계 관련 단체는 모든 식품이 100% 안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자표 계란은 세계에서도 안전성이 인정된 만큼 국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계란은 '간식용으로 가장 좋은 식품'임이 강조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 널리 홍보되고 있으며,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고 영국의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I)



스계란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의 한장면

## 일본

### 지난해 농축업관련 졸업생 취업동향

지난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를 보면 농장경영 2.2%, 공무원 5.8%, 식품관련업체 취업 9.0%, 농축산관련업체 취업 1.8%, 진학 33.1%, 기타 47.4%로 나타나 농축산관련 쪽으로 진출한 학생들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도 경향은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농장경영 5.4%, 공무원 1.7%, 식품관련업체 취업 6.0%, 농축산관련업체 취업 6.0%, 진학 34.6%, 기타 47.8%로 농장경영과 농축산관련 업체 취업, 진학이 대졸보다 높은 성향치를 보였다.(鶏の研究)